

울사들이 미국가는 까닭은?

해인율원 스님 12명 뉴욕원각사서 수계법회, 승산 스님 발자취도 순례

해인총림 율원(원장 무관)의 울사 스님들이 미국의 불자들에게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설한다. 미주포교 반세기 만에 울사스님들이 공식적으로 현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과 연구과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그리고 졸업한 울사 스님 등 12명의 울사들이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26일간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 사찰을 순례한다.

순례기간 중 스님들은 9월 10일 뉴욕 원각사에서 동부사원연합회(회장 원영)가 주최하는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에서 계를 설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서부 남가주 사원연합회(회장 혜철)가 주관하는 마항제에 참석해 무관 스님이 법문을 한다.

해인율원 스님들의 미국 동부 서



무관 스님

부지역 사찰 순례는 율원 졸업생을 앞둔 젊은 스님들이 졸업 후 보다 넓은 안목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졸업 후 개인 수행은 물론 포교 일선에도 뛰어들어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스님들은,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파악하고 장차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

율원 스님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한데 엉켜 있으면서 세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속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또, 해인율원 스님들의 이러한 뜻은, 미국 동부 서부지역 해외포교일선에서 뛰고 있는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은 "미주지역 순례에 나서는 스님들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원력이라는 수행의 3요소를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전체를 확고하게 다짐했다. 또,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승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스턴의 프로빈스텐 센터를 방문해 승산 스님의 포교 원력도 느껴본다.

맨하튼에서 활발히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티베트 일본 스리랑카 사찰과, 해외포교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을 듣는 대만 불광사의 분원 서레사와 서레대학도 방문할 예정이다.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은 "미주지역 순례에 나서는 스님들은 믿음과 지혜 그리고 원력이라는 수행의 3요소를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전체를 확고하게 다짐했다. 또,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승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스턴의 프로빈스텐 센터를 방문해 승산 스님의 포교 원력도 느껴본다.

맨하튼에서 활발히 포교활동을

배치신 기자 jsun@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월 정공 스님 정수 극락사 조실



시방세계 7월 사찰계사편 번신은 무죄?

조계사 학부모 입시특강 12월 특별기고 '간도는 우리땅' 19월

여름휴가 관개로 금주 20면 발행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93년만에 귀환했다. 8월 11일 오후 1시 오대산 사고지에서 시작된 한국고유제(고국에 돌아왔음을 알리는 의식)를 마친 실록이 책에 실려 이운되고 있다. 월정사=배재기 기자

월정사 인근에 기념관... 건립비 50억 확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지로 돌아올 듯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원소장처였던 평창 월정사 오대산 사고지 인근에 소장될 전망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8월 11일 월정사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 한국 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에서 "오대산 사

고지 인근에 기념관을 짓고 그곳에 소장토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재 월정사주지 관장도 "기념관 건립에 드는 비용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은 사실에 무게감을 더했다. 고유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제3차 포교정책 연찬회

신도시포교 어린이가 '열쇠'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불교계는 신도시 포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불교 신자는 10년 전인 95년보다 15.6%(7797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톨릭 신자는 같은 기간 93.4%(3만8837명) 늘어났다.

같은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불교 신자는 95년 보다 44.6%(4만0698명) 늘어났지만, 가톨릭 신자는 154.8%(7만5439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 근무 및 수업 등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신도시 거주민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림 스님은 "어린이를 사찰로 이끌면 자연스레 가족 전체를 사찰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어린이 포교는 가족 전체에 대한 포교라는 지론이다. 스님은 또 어린이 포교는 사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평생 불자를 만들 수 있는 '씨앗 포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련해 교육한다면 도심포교당 운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성장연구소가 교회운영 제반 기법을 다른 교역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연찬회에서 또 '종단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노현 강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산 스님도 "신도시 포교를 책임지고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서에 종교용지 분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각 분사에

"아이들 절에 오면 어른 함께 와"

도심포교 '성공 노하우' 공유해야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8월 10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시 포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제3차 포교정책연찬회를 열었다. 신도시 지역에서 불교의 영향력과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찬회에서 박노현 중앙승가대 강사와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주목했다.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 신도시 포교 접근을 시도한 박노현 강사는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교육 열의가 높고, 주5일

이와 관련 일산에서 포교당을 운영한 적이 있는 장산 스님(불교신문사 주간)은 "반드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들 지도교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포교연구실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조기룡 연구원은 "포교연구실에서 성공한 도심포교당의 성공 사례를 뽑아 지역적·시기적 성공요인, 조직관리, 재정관리, 주지스님 리더십 등에 대한 요인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종단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수는 물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 신도시에 법당을 건립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법규 등을 자문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투명화"는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스님들에게서 나왔다.

장산 스님과 보림 스님은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신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사찰 제반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50여곳이 건립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도시 사찰 '종교용지' 설정 안해 피해

신도시 개발시 종교시설로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찰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사찰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 김포 장기, 양주 옥정 등 미니신도시 구역 내에 위치한 사찰 가운데 종교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사찰들, 이들은 실질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종교용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 시설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현재 보상단계에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경우 구역내 총7개 사찰이 위치해 있으나, 이 중 존치되는 사찰은 병영사 뿐이다. 용인 보현정사, 상현사, 수원 백운암 등은 실제로는 사찰로 활용되고 있지만 종교용지가 아니어서

강제이전명령을 받은 상태. 대토나 종교용지 불하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절을 포기하거나 땅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시 사찰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종교시설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또한 사찰제산의 종단등록을 통해 삼보장제를 관리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봉영 기자

세로 88cm x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수월관음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추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총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인신 법사 金養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약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권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인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정적 주기도 하고, 새집이 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계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 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어해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 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들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부자지갑

옴마니반메흠福지갑

종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음양의 조화로운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종지갑(검정) 여성용종지갑(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극 기다려신 중에 계시는 때 가난으로 활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위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해져다. 불경에 인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 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흠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만사가 행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의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는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 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 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장지갑 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